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3.1운동과 회중 찬송가의 공공성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Publicness of Congregational Song

송영목·정미경

고신대 (신학과 교수) · 고신대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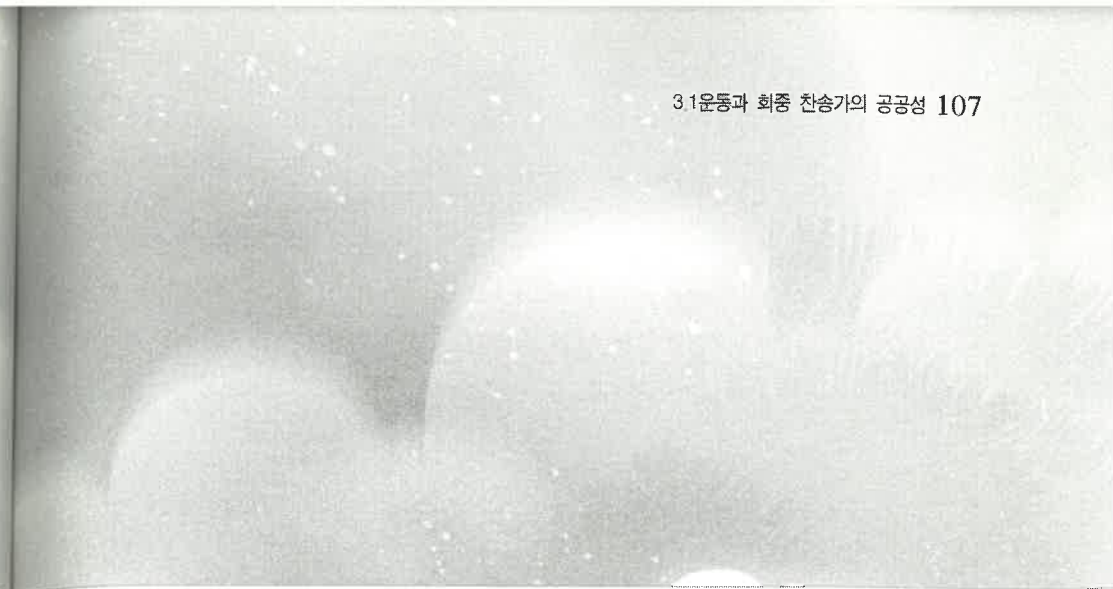
목차

1. 들어가면서 | 111
2. 일제 강점기의 찬송가 | 114
3. 3.1운동이 오늘 날의 회중 찬송가의 공공성에 주는 함의 | 118
 - 3.1.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분석 | 121
 - 3.2. 찬송가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분석 | 122
 - 3.3. 찬송가 582장 “어둔 밤 마음에 잠겨” 분석 | 123
 - 3.4. 찬송가 583장 “이 민족에 복음을” 분석 | 124
 - 3.5. 찬송가 584장 “우리나라 지켜주신” 분석 | 125
4. 나오면서 | 129



3.1운동과 회중 찬송가의 공공성

회중 찬송가는 공동체의 신앙과 신학을 표현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실천적 영성을 강화한다. 3.1운동에 기독교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데 이의가 없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3.1운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한 신앙적 요소 곧 종교적 동기를 살펴 볼 필요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 글은 범위를 좁혀, 일제 강점기에 그리스도인이 불렀던 찬송가를 연구하여, 그들의 신앙의 특성을 탐구한다. 3.1운동 당시의 찬양은 신앙을 애국으로 표현한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찬송가는 3.1운동의 정신을 얼마나 반영하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1세기 찬송가』에 “나라사랑”이라는 주제에 해당하는 5편의 찬송을 분석하여, 공공성을 반영한 점이 매우 부족한 사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 회중 찬송가가 애국 신앙과 같은 복음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하여 담아낼 수 있는지 방안을 찾고 실제 곡을 제시해 본다. 이를 통해, 특별히 시민력에 맞추어 선교적



교회가 부를 수 있는 회중 찬송가가 거의 전무한 현실 속에서 하나의 대안적 모델을 제시한다.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Publicness
of Congregational Song*

주요어

3.1운동, 회중 찬송가, 공공성, 한국교회, 예배

Abstract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Publicness of Congregational Song

Prof. Dr. Young-mog Song · Mee-kyeong Jeong

Congregational song describes the faith and theology of the Christian community and strengthens her practical spirituality. There is no disagreement of the fact that Christians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1919. For this reason, it is worth tracing the confessional element or the religious motivation which urged Christians to participate in the movement. By focusing on the hymns writte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this paper tries to figure out the faith aspects of the church in 1919. The congregational songs sung at the early period of the last century were full of patriotism. By keeping this fact in mind, this study analyzes current congregational songs in order to find out the degree to which the public spirit of the hymns in the time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s reflected in them. To attain this aim, analysis is done on 5 hymns which are categorized as patriotic songs in the 21st century hymnal. Then, the publicness of the

congregational song is suggested by a newly composed hymn which would be a desirable and suitable model for a church meeting according to the civil calendar.

Keywords |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congregational song, publicness, the Korean church, worship

1. 들어가면서

3.1운동에 그리스도인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데 별다른 이의는 없다.¹⁾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3.1만세운동에 참여하도록 만든 신앙적 요소 곧 종교적 동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²⁾ 이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은 일제 강점기에 그리스도인이 불렀던 찬송가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신앙의 공공적 특징을 탐구한다.³⁾ 그리고 3.1운동의 정신을 현재 21세기 찬송가가 어느 정도 담고 있는가를 살피고, 오늘 날 회중 찬송가가 애국 신앙과 같은 복음의 공공성을 담아내는 방법과 실례를 제시한다. 한국교회가 이전보다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와 복음의 공공성에 관심을 더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공적으로 현시하는 원칙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⁵⁾ 이와 관련하여 찬송가의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 1) 유준기, “3.1운동과 기독교계 민족대표의 활동,” 『總神大論叢』 23 (2003), 46-59.
- 2)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상일, “3·1정신과 21세기 한국교회 회중찬송곡,” 『선교와 신학』 46 (2018), 307. 이 글의 독자로 하여금 각 교파가 추구하는 찬송을 이해하도록, 한국 교회 음악가의 소속을 표기한다.
- 3) 이 글에서 공공성은 크리스천이 복음을 말과 행실로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것을 가리키기에,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의 주장과 무관하다.
- 4) 이 글에서 선교적 교회란 크리스천이 교회당 밖에서 선교사적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
- 5) 한국교회가 복음의 공공성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고 공공성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시점에서, 성석환에 의하면, “공공신학은 기독교의 공동체 신학이 아니다. 공공신학은 기독교 내부의 공동의 혹은 공유된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가치와 신념들이 함께 거하는 일종의 아고라 광장에서 신학적 실천을 도모하는 것이다.” 참고. 성석환, 『공공신학과 한국 사회』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69, 371. 하지만 이 글에서 공공신학 혹은 복음의 공공성은 먼저 기독교의 공동체의 예전과 신앙과 신학에 방점을 두고, 그 다음으로 그것들을 세상 속에서 표현하는 방법에 집중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공공성을 지닌 회중 찬송가가⁶⁾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찬양과 기도의 차이에 매인(행 16:24-25 참조)⁷⁾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신앙적 정체성과 사명을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 환언하면, 예배 중에 회중은 신앙고백과 기도와 찬송으로써 오늘날 만연한 자기중심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세대 차이를 극복하여 공동체적으로 신앙을 고백한다.⁹⁾ 이처럼 바람직한 회중 찬송은 성도의 신앙과 삶과 고백을 압축적으

로 노래하는 특성을 가진다.¹⁰⁾

기독교 영성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성도의 삶 자체이므로, 회중 찬송을 포함하는 주일 공예배 영성(worship/liturgical spirituality)을 강화해야만 주중의 예배적 삶이 가능하다.¹¹⁾ 예배 영성은 공예배 중에 찬송한 대로

- 6) “코랄”(chorale)을 통해 회중 찬송을 보급한 마틴 루터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으며, 로마 가톨릭은 1960년대부터 그레고리안 찬트 이외의 다양한 장르를 통해 회중찬송을 강화했다. 동서대학교 김성대, “예배의 자리, 회중, 예배음악의 관점에서 바라본 회중찬송,”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7/1 (2006), 216-22. 참고로 196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보급된 회중 찬송의 성경적 근거는 출 15:1, 대상 25, 대하 5:11-14, 느 7:44, 12:27-38, 시 120-134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엡 5:19-20, 골 3:16 등이라는 설명은 침신대학교 김남수, “예배와 회중 찬송,” 『복음과 실천』 16/1 (1993), 442를 보라. C. M. Hawn, “Streams of Song: An Overview of Congregational So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Hymn* 61/1 (2010), 16도 참고하라.
- 7) 행 16:25는 기도를 찬송 앞에 위치시킨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박태준은 성경이 기도 전에 찬송하라고 가르친다고 잘못 주장했다. 박태준, “예배와 찬송,” 『신학논단』 1 (1953), 62.
- 8) 감상규, “예배에서 음악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 19 (2009), 142. “회중에게 찬송을 가르치라. 그러면 찬송이 회중에게 복음을 가르칠 것이다.” M. J. Edwards, “The Teaching Ministry of Congregational Song,” *Southwestern Journal of Theology* 38/2 (1996), 35, 39. 그리고 M. A. Noll, “We are What We sing: Our Classic Hymns reveal Evangelicalism at Its Best,” *Christianity Today* 43/8 (1999), 37-41; J. S. Burnett, “Congregational Song and Doctrinal Formation: The Role of Hymnody in the Arian/Nicene Controversy,” *Liturgical Ministry* 10 (2001), 89도 참고하라. 참고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편찬한 최초의 악보 찬송가인 『찬양가』(총 117곡, 1894)는 성찬을 1년에 1회만 시행하여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잘못 제안했지만, 『신증복음가』(성결교, 1924)와 『신명찬송가』(감리교, 1931)는 성찬의 과거, 현재, 미래적 의미를 균형 있게 제시했다. 참고. 하늘문열린선교교회 김태규, “초기 한국교회 찬송가에 나타난 성찬이해,” 『복음과 실천신학』 33 (2014), 106-107.
- 9) 이상일, “21세기 한국 문화와 회중찬송,” 『장신논단』 37 (2010), 202-203. 참고로 한국의 중요한 찬송가들은 『찬미가』(북감리교선교부, 1892, 1895), 『찬양가』(1894), 『찬성시』(북장로교, 1895), 『복음찬미』(1899, 1931), 『찬송가』(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 찬송가, 1908, 1931, 1935), 『복음가』(성결교, 1907), 『찬미가』(1907), 『구세군가』(1908), 『신증복음가』(성결교, 1919), 『조선어성가』(천주교, 1924), 『부흥성가』(1930, 1937), 『신명찬

송가』(감리교, 1931), 『신명찬송가』(1935), 『아동찬송가』(1936), 『아동성가집』(1940), 『찬송가』(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의 합동 찬송가, 1949), 『학생찬송가』(1959), 한국인이 만든 찬송 2곡(김활란의 “감감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와 남궁억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포함하여 만든 『찬송가』(근대 새 찬송가, 1962), 『해군찬송가』(1965), 『YFC찬송가』(1965), 『찬송가』(개편 찬송가, 1967), 『육군찬송가』(1972), 『국군찬송가』(1977), 『찬송가』(한국 교회 전체가 사용한 통일 찬송가, 1983), 『해설 찬송가』(1987), 한국인이 만든 찬송 109곡을 포함한 『찬송가』(현재 21세기 찬송가, 2006)이다. 참고. 민경배, 『韓國教會讚頌歌史』(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7), 26-60; 침신대학교 강판희, “한국 찬송가 색인에 관한 연구: 역사, 구성 및 내용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 42/1 (2008), 24. 미국의 경우, 교단별로 찬송가를 출판한 것은 19세기부터였는데, 현재는 찬송에서 교단의 경계는 거의 허물어졌다. C. R. Young, “The Denominational Hymnal and The Crisis in Congregational Song,” *Choral Journal* 9/5 (1969), 24. C. R. Bradley, “Congregational Song as Shaper of Theology: A Contemporary Assessment,” *Review & Expositor* 100/3 (2003), 353.

10) 제1차 니케아회의(AD 325)가 열리기 전에 아리우스(256-336)는 자신의 교리를 정통이라고 변호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찬송 “탈리아”(Thalia)를 만들어 보급했는데, 니케아의 삼위일체교리를 지지한 이들(예. 에브라임, 요한 크리소스톰, 힐러리, 암브로스)도 찬송을 만들어 Thalia를 반박했다. 그리고 5세기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프로클루스(Proclus)는 사회 상황을 반영한 시편가를 만들었다. J. Hehn, “Congregational Song as Theological Debate in Late Antiquity: A Case Study of Arius’s Thalia and the Development of Trinitarian Orthodoxy,” *The Hymn* 65/1 (2014), 14-16; Burnett, “Congregational Song and Doctrinal Formation,” 83-88; 서울신학대학교 양정식, “평화의 사회적 정의를 위한 치유와 회복의 음악,” 『신학과 실천』 42 (2014), 507; 이상일, “공적 신앙 형성과 회중찬송,” 『신학과 실천』 58 (2018), 198. 참고로 한국 찬송가에 큰 영향을 미친 미국의 경우, 회중 찬송가의 수명은 약 20년인데, 교단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도록 기획된다. 미국의 첫 회중 찬송은 1728년 침례교회에서 불렸으며, 첫 회중 찬송가는 1766년에 출판되었다. 강만희, “2000년 이후 출판된 미국 회중찬송가의 경향과 특징,” 『신학과 실천』 35 (2013), 133-34.

11) “Liturgy”(예전, 예배)는 헬라어로 λειτουργία 즉 λαός(백성)과 οὐργία(일)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예배 특히 회중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의 주된 일”이다. Edwards, “The

주중에 실천하는 것이다.¹²⁾ 하나님은 특정한 시간과 상황 속에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지만,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온 우주에 활동하시기에 교회의 예배적 반응은 모든 삶을 포괄한다.¹³⁾

2. 일제 강점기의 찬송가

찬송가에 세계 평화와 사회 정의와 같은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무에 관한 주제가 등장한 것은 19세기 중반부터이다. 1840년대에 크리스천은 평화를 기원하고, 강대국의 약소국 정복을 규탄하며, 노예제도의 폐지를 노래했다(예. H. Chorley, J. Ellerton, J. R. Lowell). 1960년대 영국에서 그린(F. P. Green)과 칸(F. Kaan)은 사회적 양심의 회복과 현실 문제를 찬송가사에 담아냈는데, 이런 가사는 편안하게 신앙을 생활하던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귀에 거슬렸다.¹⁴⁾ 그리고 20세기 중순부터 찬송가에 생태계에 대한 염려를 담기도 했다.¹⁵⁾

3.1운동 후, 일본 음악교육이 강압적으로 강요되었지만, 기독교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항일(抗日)음악이 시도되어 독립 및 항일 의식을 고취했다.¹⁶⁾ 제1차 대전 후에 유행한 성경의 양식비평이 문학 양식을 산출한 공동체의 삶의

정황(sitz im leben)을 찾았다면, 유사하게 찬송 가사는 작사되던 당시의 문화는 물론 작사자의 삶의 정황과 신학적 세계 안에서 먼저 분석되어야 한다.¹⁷⁾ 흥미로운 사실은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는 독창적인 문화를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밝힌 점이다.¹⁸⁾ 즉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대표 33인은 한류 문화의 세계적 보급을 꿈꾸었다.

배위량 선교사의 부인 애니 베어드(A. L. Baird; 1864-1916)는 한국어에 능통했으며, 일제 강점기 동안 한국의 찬송가 발전과 교육에 큰 기여를 했다. 미국 부흥 시기의 복음찬송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신앙의 감격을 소박한 문체로 담아낸 베어드는 1898년부터 1905년 사이에 만들어진 찬송가 약 58편을 번역했다. 그리고 2편은 창작했는데(『21세기 찬송가』 375장, 387장), 『21세기 찬송가』에 무려 37편이 실렸다.¹⁹⁾

1883년 5월, 한국 최초 교회인 소래교회는 중국에서 유입된 중국어 찬송가를 활용했다.²⁰⁾ 1885년 이후로는 선교사들이 유입해 온 영어 찬송가를 그대로 사용하다 점차 한글로 번역하여 활용했다.²¹⁾ 갑오개혁(1894-1896) 이후 일제 강점기 때, 불린 창가(唱歌)는 서양곡에 계몽사상과 애국사상 등을 담은 가사를 가리킨다.²²⁾ 최초의 창가는 고종의 생일을 축하하여 1896년에 새문안 교회가 부른 현재 찬송가 70장(『21세기 찬송가』, 2006)이며, 두 번째 창가는 독립문 정초식에서 배재학당 학생들이 1896년에 부른 찬송으로 현재 찬송가

Teaching Ministry of Congregational Song,” 35.

12) 수도원 운동과 중세에 성직자가 주도한 예전은 예배와 일반 성도의 영성을 분리시켰지만, 19세기부터 예전과 예배가 재결합하게 되었다는 분석은 J. Dallen, “Liturgical Spirituality: Living What We sing about,” *Liturgical Ministry* 4 (1995), 49-52를 보라.

13) T. S. Garrett, *Christian Worship: An Introductory Outlin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4, 181.

14) Reynolds and Price, 『찬송가학』, 131.

15) 이 단락은 W. J. Reynolds and M. Price, 『찬송가학』 (A Survey of Christian Hymnody, 이혜자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7), 26-28에서 요약.

16) 중앙대학교 노동은, “1910년대 기독교계 학교의 음악교육과 그 영향,” 『한국기독교와 역사』 20/3 (2004), 66, 73.

17) J. R. Pressau, “Songs of Salvation: Yesteryear’s Music for Yesterday’s Faith,” *Duke Divinity School Review* 43/1 (1978), 54-55.

18) 이상일, “3·1정신과 21세기 한국교회 회중찬송곡,” 310-11.

19) 민경배, 『韓國教會 讚頌歌史』, 103-109; 충신대학교 하재승, “한국찬송가와 애니 베어드(Annie L. Baird),” 『總神大論叢』 36 (2016), 187-205에서 요약.

20) 백석대학교 김도수, “개화기 30년간 개신교 찬송가의 유입과 수용 과정 및 학교음악과 사회음악에 끼친 영향,” 『음악논단』 23 (2009), 165, 170.

21) 김도수, “개화기 30년간 개신교 찬송가의 유입과 수용 과정 및 학교음악과 사회음악에 끼친 영향,” 168.

22) 이상일, “3·1정신과 21세기 한국교회 회중찬송곡,” 311.

280장이다.²³⁾ 따라서 찬송가는 창가 교육에 있어 중요한 교재였다.²⁴⁾

감리교인 윤치호(1864-1945)가 만든 『찬미가』(1907)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1912년에 금서(禁書)로 지정된 애국송인데(특히 10장, 14장), 오늘날의 애국가를 처음으로 공개하여 실었다.²⁵⁾ 1905년의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겪은 지 2년 후 겨레가 겪은 통분을 염두에 두고 신앙을 진취적으로 표현한 『찬미가』는 10년 후 3.1만세 운동 때에도 불렸다.²⁶⁾ 그 후 대부분의 독립가와 애국계몽가는 찬송가를 개사하여 기독교의 애국정신이라는 공공성을 강조한 노래였다.²⁷⁾

1908-1909년경부터 한국 교회가 애창한 “십자가 군병들아”(352장)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나”(351장)는 3.1운동 당시에도 애국가 곧 애국의 노래로 불렸다.²⁸⁾ 하지만 윤치호의 『찬미가』(1907년) 이후에 발행된 찬송가에 애국

이나 공적 내용은 거의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²⁹⁾ 예외적인 경우는 남궁억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580장)인데, 1931년의 『신정찬송가』에 실렸다.³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 전후로 한국교회의 찬송가는 세속 음악의 발전과 사회 계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실은 분명하다: “1910년 이후 창가는 다행히 국민들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예술 욕구와 교육 욕구가 창가 속에 표출되어 최고 절정에 이르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그리고 다른 음악 영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찬송가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세속 창가곡 즉 애국가, 계몽가, 군가, 독립군가, 연가 등의 형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창가는 향후 여러 음악적 영역으로 분화되었다.”³¹⁾

19세기 말부터 3.1운동 당시 그리고 그 직후까지,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의 애국 찬송가는 한국 사회와 세속 음악을 계몽하여 이끌어 줌으로써 강한 공공성을 보였다.³²⁾ 이런 애국 찬송가에 나타난 복음의 공공성이 오늘날

23) 이상일, “3·1정신과 21세기 한국교회 회중찬송곡,” 312.

24) 김도수, “개화기 30년간 개신교 찬송가의 유입과 수용 과정 및 학교음악과 사회음악에 끼친 영향,” 172, 184. 참고로 1909년에 내한하여 평양 숭실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한 E. M. Mowry는 장대현교회에 남성 찬양대를 조직했다. 이것이 한국에서 첫 번째 찬양 대였다.

25) 참고로 일제에 의해 찬송가의 전장이나 부분 삭제를 당하거나 자구 수정을 강요받은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353장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는 군사 투쟁적 이미지로 인해 반일성(反日性)을 지적 받았다. 찬송가처럼 성경도 수모를 겪었는데, 구약성경과 요한계시록은 금서 취급을 당했으며, 사복음서에 기인해서 교의를 선포 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민경배, 『韓國教會 讚頌歌史』, 62, 162-71.

26) 민경배, 『韓國教會 讚頌歌史』, 64; 평택대학교 문성모, “[한국교회 예배와 음악 다시 보기 (22)] 애국가는 찬송가로 만들어졌다,” 『기독교사상』 690 (2016), 138-39, 143; 노동은, “1910년대 기독교계 학교의 음악교육과 그 영향,” 106; 이상일, “3·1정신과 21세기 한국교회 회중찬송곡,” 312-13. 참고로 문성모는 애국가는 원래 찬송가로 만들어 졌고, 『찬미가』에 처음 실렸으며, 그 당시 예배 중에 불렸다. 따라서 오늘 날도 예배 중에 애국가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인이 예배에 참여하는 국제화 시대에 애국가를 찬송으로 부르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27) 영남신학대학교 정경호, “선교 초기 찬송가 및 노래말 속에 나타난 민족신앙과 사회변혁의 윤리: 선교 초기에 193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신학과 목회』 12 (1998), 155-204; 이상일, “3·1정신과 21세기 한국교회 회중찬송곡,” 313.

28) 노동은, “1910년대 기독교계 학교의 음악교육과 그 영향,” 109; 이상일, “3·1정신과 21세기 한국교회 회중찬송곡,” 313.

29) 이상일, “3·1정신과 21세기 한국교회 회중찬송곡,” 314.

30) 이상일, “3·1정신과 21세기 한국교회 회중찬송곡,” 314. 참고로 1896년 서울 상동교회 당에서 부른 애국가에 “국기 잡고 맹세하여 대군주의 덕을 돕세”에는 태극기 앞에 맹세하는 민족신앙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것은 십계명 중 1-2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크다. 참고 정경호, “선교 초기 찬송가 및 노래말 속에 나타난 민족신앙과 사회변혁의 윤리: 선교 초기에서 193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신학과 목회』 12 (1998), 168.

31) 김도수, “개화기 30년간 개신교 찬송가의 유입과 수용 과정 및 학교음악과 사회음악에 끼친 영향,” 189.

32) 20세기 영국의 일부 찬송들은 시대상을 반영하여 사회의 갈등과 문제를 반영하여 사회를 치유하는데 효과를 보였다. 예를 들어, 옥스퍼드대학교에서 현대 언어와 구약 선지서의 종말론적 언어를 연구한 연합개혁교회(URC) 목사 Brain A. Wren(b. 1936)은 1976년부터 해방신학과 본회파의 영향을 찬송 시에 본격적으로 담았는데, 그는 성경의 정의와 해방을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반대했다. 그리고 미국의 “사회 복음”(social gospel)과 “포크 찬송”(folk hymnody)도 사회 상황을 담은 찬송이다. 1980-1990년은 미국에서 찬송가가 폭발적으로 대량으로 만들어진 기간이었다. 그 당시 찬송가는 신학적 변화와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요소의 변화를 반영했으며(예. 환경보호, 세계평화, 계발도상국의 형편, 성[性] 포괄적 단어의 사용), Wren이 만든 찬송도 7곡이나 포함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찬송 가사에 있어 작사자의 이데올로기가 성경 위에 자리

어느 정도 계승되고 있는지, 그리고 계승할 수 있는 방안을 아래에서 살펴볼 것이다.

3. 3.1운동이 오늘 날의 회중 찬송가의 공공성에 주는 함의

예장총회에서 축출된 예장 고신(1954년 4월)과 WCC의 에큐메니칼 문제를 두고 예장 통합과 갈라선 예장 합동(1959)은 1960년 12월 13일에 교단을 하나로 통합했다. 이 새로운 교단은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 1962년 12월에 『새 찬송가』를 출판하여 보수신앙을 확인하려는 취지를 보였다.³³⁾ 이 찬송가는 음악적 요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러두기”가 있었고, 한국인이 만든 곳은 김활란의 “감감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와 남궁억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도 포함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예장 고신의 설립자들은 예장 총회가 해방 이후에도 신사참배를 회개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다가 축출되었다. 그런데 『새 찬송가』에 친일행각이 드러난 김활란의 곡이 실린 것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해방 후 75년이라는 격동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찬송가에 애국신앙이나 공공적 가사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해방 이후 1960년대에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 양정식, “평화의 사회적 정의를 위한 치유와 회복의 음악,” 507-508; 하재송, “Hymns of Social Concerns by Fred Pratt Green and Fred Kaan,” *Chongshin Review* 17 (2012), 179-92; P. P. Allen, “Singing a Faithful Song: Brian Wren’s Hymns of Justice,” *The Christian Century* 102/23 (1985), 675-79; T. W. Sharp, “The Decade of the Hymnal 1982-1992: Choral Piety and Belief, Hardbound,” *Choral Journal* 32/9 (1992), 32-35.

33) 민경배, 『韓國教會 讚頌歌史』, 180-81.

김재준이 작사한 “어둔 밤 마음에 잠겨”(582장)는 예외이다.³⁴⁾ 그리고 한국찬송가위원회가 간행한 (개편)『찬송가』(1967)는 기존 찬송가에 포함된 복음성을 대폭 제외했으며, 피안적 종말론을 반영한 찬송보다는 현세적인 선교적 사명과 현실적인 책무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³⁵⁾

현재 한국교회가 사용 중인 『21세기 찬송가』의 신앙적 특성을 고찰하면, 찬송가의 공공성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찬송가』(2006)의 제목 분류에 따르면, “성자” 예수님(80-181장), “회개와 용서”(250-222장)와 같은 “구원”(250-289장),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370-403장)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290-494장)이 매우 강조된다.³⁶⁾ 따라서 구주 예수님과 그분이 주시는 사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개인적이고 영적인 신앙이 주요 강조점이다. 덧붙여, “전도와 선교”(495-549장)라는 제목 하에 많은 찬송가가 포함되기에, 영혼구원을 통한 교회 성장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다.³⁷⁾ 이런 강조점은 복음과 신앙의 핵심

34) 참고. 이상일, “3·1정신과 21세기 한국교회 회중찬송곡,” 314. 개혁신학에서 이탈한 김재준의 신학에 대한 비평이 필요한데, 그 작업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선다.

35) 민경배, 『韓國教會 讚頌歌史』, 182-84.

36) 『21세기 찬송가』에 명시 “십자가”를 포함하는 것은 108곡이며, 전체 645곡 중에서 16.7%에 해당한다. 참고. 이상일, “공적 신앙 형성과 회중찬송,” 203, 206. 『21세기 찬송가』와 유사하게, 30년 전쟁(1618-1648)을 겪은 유럽 교회의 찬송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내용과 자기 성찰의 요소가 부각되었다. 이 현상은 독일 경건주의 찬송으로 이어져서, 신앙의 개인적이며(예. “우리”에서 “나”로) 열렬한 분위기가 강화되었다. 이런 주관적 성향으로 인해, 18세기에 회중찬송은 시들해졌다. 18세기 말의 낭만주의는 19세기를 거치면서 꽃을 피웠는데, 주관 이 객관을 대체하고 감각과 상상력이 이성을 이기게 되었다. Reynolds and Price, 『찬송가학』, 61-64, 115. 참고로 암 투병 중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특히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은혜와 사랑, 인도와 보호, 기도와 간구에 해당하는 찬송가를 선호한다. 주지은·황은영, “기독교 암 환자의 개인변인에 따른 교회 음악 선호도 조사연구,” 『신학과 실천』 39 (2014), 296-300.

37) 1898년 7월에 감리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애창 찬송가 18곡의 주제는 구원, 성경, 인도와 보호, 영생과 재림을 소망, 그리고 사죄의 은혜 등이었다. 가장 애창된 노래는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참기쁘고 복 되도다”와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

요소를 드러내는 귀한 것이지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신앙에 미치지 못하며 복음주의 신앙에 머문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³⁸⁾ 이런 주제들은 한국 찬송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의 부흥운동 당시에 불린 복음성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³⁹⁾

복음의 공공성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영하는 찬송가 580-584장은 “행사와 절기”라는 제목 하에 “나라사랑” 항목으로 묶여 있다. 이 찬송 5편이 3.1절

고 평안하구나”였다. 이것은 청일전쟁, 명성황후 시해, 아관파천, 일제의 점진적 침략을 겪을 당시 초기 한국 교회의 내면적이며 내세지향적 신앙을 반영한다. 민경배, 『韓國教會讚頌歌史』, 241-45. 이런 경향은 성경찬송반주 애플리케이션 “성경과찬송” 활용 빈도에 나타난 애창 찬송가 5곡에서도 볼 수 있다(2018년 10월 통계): 1위-370장 주안에 있는 나에게, 2위-88장(내 진정 사모하는), 3위-301장(지금까지 지낸 온 것), 4위-620장(여기에 모인 우리), 5위-79장(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고로 1980-1990년경 미국 기독교인이 애창하는 찬송가의 주제는 최근 한국 상황과 유사했다. Sharp, “The Decade of the Hymnal 1982-1992,” 31. 참고로 사용자를 배려하여 찬송가의 색인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강만희, “한국 찬송가 색인에 관한 연구,” 34를 보라.

38)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간행한 『聖歌集』(1979)의 제216장은 조용기목사가 만든 노래인데, 그는 요삼 2를 반영하여 소위 “3중 축복”을 강조한다. Contra 『聖歌集』을 한국교회사에서 길이 빛날 업적이라고 극찬하는 민경배, 『韓國教會讚頌歌史』, 202-205. 하지만 찬송 가사가 개인의 주관적 감정으로부터 주권적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헌신으로 점차 발전해 가야 한다는 주장은 Pressau, “Songs of Salvation,” 66-67을 보라.

39) 19세기 말부터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유입된 미국의 복음송은 『21세기 찬송가』에 많이 수록되어 있다. 주관적 체험을 강조하고 수평적 차원의 교제와 전도 등을 강조하는 복음 찬송은 예배 찬송으로 적합하지 않다. 김성대, “예배의 자리, 회중, 예배음악의 관점에서 바라본 회중찬송,” 229-32; 장로회신학대학교 조숙자, “한국 찬송가와 미국 Gospel Song,” 『장신논단』 13 (1997), 433, 442; 이상일, “공적 신앙 형성과 회중찬송,” 204; M. A. Noll, “We are What We sing: Our Classic Hymns reveal Evangelicalism at Its Best,” *Christianity Today* 43/8 (1999), 38-39.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대체로 C. Finney와 그 뒤를 이은 D. T. Moody로 대표되는 부흥 운동, 그리고 뒤이은 학생자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의 영향을 받아 보수적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었다. 1905년부터 1909년까지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는 135명으로 추정되는데 그중에서 81명이 학생자원운동을 통해 온 사람들이었다.” 박경수, “한국 개신교 초기 교회 연합 운동의 유산,” 『장로교회와 신학』 8 (2011), 212.

기념주일이나 광복기념주일과 같은 시민력(市民曆)에 맞추어 부르기에 공공성을 적절히 띠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⁴⁰⁾ 따라서 3.1운동 당시의 복음의 공공성이 이 5편의 찬송가에 어떻게 계승되어 반영되었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은 오늘 날 교회가 보완하여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찬송가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⁴¹⁾

3.1.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분석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한서(翰西) 남궁억(1922)이며, 작곡자는 G. Donizetti(1835)이다. 곡명은 전쟁 나팔을 가리키는 “클라리온”(Clarion)인데, J. B. Morgan의 “나팔 소리 들려온다.”를 남궁억장로가 조국 광복을 소망하며 “봄 돌아와 밭 갈 때”로 개사했다. 이 찬송가는 일제가 금지한 1호 찬송이 되었다. 1896년에 남궁억(1863-1939)은 독립협회 수석 총무로 활동했으며, 황성신문을 창간하여(1898) 민족의식을 고취했다.⁴²⁾ 또한 남궁억은 어린이 교육을 위해 교사로 재직했으며, 어린이용 역사책 『조선이야기』를 출판했으며(1929), 삼천리 강산 지도에 무궁화를 수놓도록 가르쳤고, 고향 “무궁화 고장” 흥천에서 감리교 전도사로도 사역했다.⁴³⁾ 남궁억의 신앙은 특별히

40) 한국 교회사에서 기념할 만한 인물이나 사건과 접목된 한국식 찬송 개발의 필요성은 문성모, “[한국교회 예배와 음악 다시 보기(25)] 한국 찬송가의 역사와 전망,” 『기독교사상』 693 (2016), 116을 보라.

41) “행사와 절기” 주제에 해당되지 않지만, 일제 강점기 당시에 즐겨 불렀던 찬송가로는 “시련과 극복”에 해당하는 “감감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345장; 김활란 작사, 1921), 일본인 나카다 우고가 작사한 “신유의 권능”에 해당하는 “주여 나의 병든 몸을”(471장; 1919), “송구영신”에 해당하는 “아침 해가 돌을 때”(552장; 1931), 그리고 “부르심과 영접”에 해당하는 “어서 돌아오오”(527장, 1943)가 있다. 참고. 오소운, 『알기 쉽게 쓴 21세기 찬송가 해설』 (서울: 성서원, 2017), 826.

42) 오소운, 『알기 쉽게 쓴 21세기 찬송가 해설』, 977-79에서 요약.

언론과 교육 영역에 공적으로 강하게 표출되었다. 찬송가 580장의 가사를 분석해 보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은 하나님의 에덴동산과 같다. 이 동산에 할 일이 많다는 찬송은 문화명령(창 1:28)을 떠올리게 한다. 2절에서 “봄이 돌아왔다”는 광복을 가리킨다. 3절은 밭 갈아 파종 후, 결실을 기대한다. 찬송가 제목 아래의 관련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9:37(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인데, 동산에서 하는 일은 전도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작사자는 해방에 대한 소망을 문화명령의 이미지에 담아내었다면, 관련 성경 구절을 달았던 이는 지상명령(마 28:19-20)에 방점을 둔다.

3.2. 찬송가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분석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장로교총회신학교에서 수학했으며 한국교회음악포럼 회장을 역임한 엄원용목사(1994)이며, 작곡자는 고신대 종교음악과에서 작곡을 전공한 신영순(1998)인데 장전제일교회 찬양대 지휘자로 섬겼다.⁴⁴⁾ 가사를 분석해 보면, 1절은 한국에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노래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성경의 중심 주제이다(참고 시 22:28; 욥 21; 계 11:15). 2절은 한국과 민족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43) 일제의 벚꽃 보급에 맞서 애국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전국에 무궁화 묘목을 보급하는 운동을 펼쳐 30만 그루를 보급했으며, 무궁화나무 아래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남궁억이 작사한 “무궁화동산가”(1920)의 가사는 아래와 같다:

1절 우리의 웃음은 따뜻한 봄바람 춘풍을 만난 무궁화동산 우리의 눈물이 떨어질 때마다 또 다시 소생하는 이천만 빛나거라 삼천리 무궁화 동산 잘 살아라 이천만의 고려족
2절 백화가 만발한 무궁화 동산에 미묘히 노래하는 동무야 백천만 화초가 웃는 것 같이 즐거워라 우리 이천만 빛나거라 삼천리 무궁화 동산 잘 살아라 이천만의 고려족. 참고, 강대덕, “한서 남궁억의 무궁화 사랑과 민족교육,” 『강원문화사연구』 15 (2010), 65-79.

44) 오소운, 『알기 쉽게 쓴 21세기 찬송가 해설』, 981에서 요약.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민족이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이다. 3절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진리와 평화와 참 정의가 흐르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고 노래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21세기 찬송가』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공공성을 담은 “정의”가 3절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찬송가 제목 아래의 관련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33(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인데, 작사자는 “의”(δικαιοσύνη)를 정의 대신, 공공성을 강조한 “참된 정의”라 표기한다(참고, 시 85:10-13).⁴⁵⁾

3.3. 찬송가 582장 “어둔 밤 마음에 잠겨” 분석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장공(長空) 김재준(1965)이며, 작곡자는 한신대 교수 이동훈(1967)이다. 김재준은 마태복음 5:37에 근거하여 1960-1970년대 군사 정권에 대해서는 “아니오”를 언행으로써 표현했으며, 현실의 변혁을 위해 “생명, 평화, 정의”를 강조했다고 알려졌다.⁴⁶⁾ 찬송가 582장은 원래 찬송가가 아니라 1965년 9월 성남교회당에서 열린 기독교장로회 제50회 총회 기념가로 만들어진 노래이다. 이 총회 기념가는 2절로 구성되었는데, 『개편 찬송가』(1967년)에 이동훈교수의 곡에 실렸다. 이 곡이 『통일 찬송가』(1983)에 실렸을 때, 시편 성경을 번역한 바 있는 늦봄 문익환목사가 3절을

45) 참고로 스스로 “의의 자녀들”로 자처한 쿤란공동체의 저녁 기도에서 “의”는 공적이라기 보다 그들의 선민의식과 연관있다. J. R. Davila, *Liturgical Works: Eerdmans Commentaries on the Dead Sea Scrolls* (Grand Rapids: Eerdmans, 2000), 235. 참고로 찬송가의 관련 성경 구절을 언제,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하지만 구약 시편의 표제를 통해서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해석방법을 찬송가의 분석에도 적용할 수 있다. 더불어 시편의 정경적 해석처럼, 찬송가의 제목 분류의 순서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다.

46) 오소운, 『알기 쉽게 쓴 21세기 찬송가 해설』, 981-82에서 요약.

추가했다. 민중신학의 비성경적 요소를 파악한 보수교회는 이 노래를 찬송가로 채택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런데 가사가 2회 수정되는 과정을 거쳐 원래 의미와 멀어졌다.

찬송가 582장의 가사를 분석해 보면, 1절은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동쪽에서 계명성이 빛을 비추어 여명이 왔다. 2절은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줄기는 하늘로 솟아오르고, 무성한 가지와 열매로 만민이 먹고 산다고 노래한다. 문익환목사가 작사한 3절은 거친 땅과 같은 한국에 맑은 샘이 흘러, 이미 여기에 임한 신천신지와 같은 푸른 벌판으로 변하여 인류를 비추는 햇불이 되라고 노래한다. 3절 가사만으로는 신천신지가 민중신학의 사회해방복음으로써 실현될 것을 작사자가 기대했는지 분명하지 않다.⁴⁷⁾ 그리고 찬송 제목 아래의 관련 성경 구절은 로마서 10:15(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인데, 좋은 소식을 영혼구원에 제한하지 않고, 전도와 복음의 공공성을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3.4. 찬송가 583장 “이 민족에 복음을” 분석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인제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북한돕기운동과 민족화해 및 평화통일운동에 참여한 이윤구(2005)이며, 작곡자는 한국여성작곡가회 이사를 역임한 임준희교수(2006)이다.⁴⁸⁾ 찬송가 583장의 가사는 비교적 단순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으로써 우리 민족이 죄 사함 곧 구원을 받았다(1절). 아름다운 한반도에서 우리 겨레가 하나가 되어 전진하고(2절),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3절). 찬송가 제목 아래의 관련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19:6(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인데, 남북 겨레가 하나가 되어야 할 한국은 죄 사함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와 같다. 하지만 신약의 제사장 나라는 한국과 같은 특정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신약 교회를 가리킨다.

3.5. 찬송가 584장 “우리나라 지켜주신” 분석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김경희(1996)이며, 작곡자는 한국교회음악협회장을 역임한 백태현(2000)이다. 오소운은 이 찬송을 “한국의 유월절”인 광복절에 부르기엔 적합한 애국 찬송가라고 평가한다.⁴⁹⁾ 찬송가 584장의 가사를 분석해 보면, 1절은 하나님의 은혜로써 억눌렸던 겨레의 울음소리가 3.1만세 소리로 울려 퍼졌는데, 일제의 억압 하에 당한 고통으로부터 광복된 감격을 후손에게 가르치자 라고 노래한다. 2절은 하나님께서 조국의 어깨를 누르던 짐을 벗기시고 수족의 사슬을 푸셨고, 일제에 의해 말살되었던 말과 글을 회복하게 하셨다고 찬양한다. 3절은 죄와 우상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를 본받아 살자는 노래이다. 마지막 4절은 광복은 세상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찬송한다. 1절은 3.1운동의 상황을 분명하게 언급하는데, 3절에서 만세운동의 비폭력 저항 정신을 순교신앙으로 발전시킨다.

찬송가 제목 아래의 관련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5:1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찬송가는 예수님이 성도에게 주신 자유를 3.1운동과 해방을 거쳐 세계 복음화라는 공동체적 의미로 이해한다.

47) 찬송가 398장 “어둠의 권세에서”(1967)도 암울한 시대에 선지자적 찬송가로 분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민경배, 『韓國教會 讚頌歌史』, 367을 보라.

48) 이윤구박사는 한국 전쟁이 휴전되기 이전에 부산에서 신학을 공부한 바 있다. 오소운, 『알기 쉽게 쓴 21세기 찬송가 해설』, 983에서 요약.

49) 오소운, 『알기 쉽게 쓴 21세기 찬송가 해설』, 984에서 요약.

이상의 찬송가 분석을 통해서, 작사자의 상황과 신학 그리고 신앙이 가사에 많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580장 2절의 광복, 581장 2절과 583장 2절의 민족의 통일, 581장 3절의 평화와 정의를 갈구하던 상황, 582장 1절의 군부독재 시절의 어두운 역사적 상황, 582장 3절의 신천신지의 일방적인 미래적 해석을 지양함, 584장 1절의 3.1만세운동의 회상, 그리고 582장 3절, 583장 3절 그리고 584장 4절의 세계 복음화이다. 위의 다양한 경향을 요약하면, 광복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과 같은 현실에서 당면한 과제를 부각시키는 흐름과 세계 복음화라는 다른 흐름으로 양분할 수 있다.

복음의 공공성이 강하게 묻어나는 581장 3절의 “진리, 평화, 참 정의”는 1994년 문민정부 당시의 국내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이해할 수 있다. 덧붙여 찬송 제목 아래의 관련 성경 구절이 작사자의 의도에 합치되는지는 다소 의문이 든다.⁵⁰⁾

3.1운동은 범 민족적 독립운동이었으므로, 남북의 평화통일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하기에 그 운동은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 찬송가』에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님 평화 통일을 반영한 찬송가가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찬송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통일의식을 고취하기 쉽지 않으며, 교회의 시야를 넓혀 복음의 공공성과 교회의 대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에도 미흡하게 느껴진다.⁵¹⁾ 오히려 고형원의 “그날” 그리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 끝까지”(2003)는 복음성가이지만, 찬송가에서 볼 수 없는 통일을 모티브로 삼는다. 이 복음성가들의 가사를 회중 찬송용으로 적합하도록 더 구체화시켜 활용한다면, 한국 교회가 통일을 열망하여

실천하도록 돕는데 유익한 방안이 될 것이다.

통일과 더불어 한국 교회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 차원의 문제는 환경오염이다. 『21세기 찬송가』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 하에 “환경” 항목은 찬송가 476-478장이다.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 (1915-2005)에 만들어진 이 찬송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집중한다. 하지만 피조물의 탄식과 파괴된 환경의 악영향을 매일 체감하는 그리스도인의 환경보호와 청지기 역할을 담은 찬송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미국 찬송가와 1990년대 호주 개혁교회 시편 찬송가는 이 주제를 포함하는데, 대만 장로교회의 『聖詩』 514-516장은 “생태 보호” 주제와 관련된다.⁵²⁾ “생태 보호”는 새 창조와 구원을 노래하는 “새 노래”라는 주제 아래 분류되기 적합하다(시 33:3; 계 5:9).

더 나아가 “새 노래”는 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와 구원의 노래이므로 복음의 공공성을 표현한다. 그렇다면 만유 안의 한 부분인 국가 영역과 맞물린 애국적 찬송가가 열방의 구원자와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에 부합하려면 어떤 교정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⁵³⁾ 예를 들어, 일본 그리스도인이 한국 교회의 애국적 취지의 새 노래를 거부감 없이 부를 수 있도록 하려면, 가사는 어떤 신학에 근거해야 하는가? 예수님 안에서 인종과 성 그리고 국가의 차별은 사라졌다(갈 3:28). 따라서 가사에 국수주의나

52) 이상일, “공적 신앙 형성과 회중찬송,” 205. 참고로 2006년 미국 침례교 찬송가와 2013년 북미 개혁교회(CRCNA)의 찬송가의 가사 규정(text guidelines)은 약 10개의 항목이 있는데, 복음의 공공성을 반영한 것은 거의 없다. 강만희, “2000년 이후 출판된 미국 회중찬송가의 경향과 특징,” 141-43.

53) S. O. Auda, “The Place of Church Music in the Promotion of Peace and Justice in the Society,” *Ogbomosho Journal of Theology* 19/3 (2014), 51; M. Morgan, “In Every Corner sing!: Congregational Song in a Global Mission Context,” *Journal for Preachers* 33/4 (2010), 48, 52. 참고로 교회 절기에 다문화적 옷을 입혀서 선교를 강조하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령강림주일에 교회 안의 외국인 지체들은 자신의 모국어로 각각 찬양을 드릴 수 있다.

50) 참고로 구약 시편의 표제의 경우 BC3세기 경 LXX편집인의 상황과 신학이 반영되었다.

51) 한국 교회가 개인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추구하는 은사주의적 예배 및 사사화(私事化)된 신앙 때문에 공공적 찬송이 부족하다는 분석은 이상일, “3·1정신과 21세기 한국 교회 회중찬송곡,” 316을 보라.

배타적이고 편협한 민족주의가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일을 해당 국민이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큰 그림의 일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⁵⁴⁾

이 글에 주제에 맞추어 범위를 좁혀서, 하나님 나라가 포섭하는 공공적 애국신앙을 표현하는 회중 찬송가의 가사는 어떠해야 하는가?⁵⁵⁾ 회중이 예배 중에 노래한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뜨거운 감성과 의지적 결단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중에 성도가 쉽게 반복하여 부를 수 있는 선율일수록, 복음을 실천할 때 맞닥치는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울 것이다. 회중 찬송은 수명이 짧은 뿐 아니라 젊은 층의 절대 지지를 받는 CCM과 차별성을 보여야 한다.⁵⁶⁾

54) 참고로 2001년에 개편된 남아공 개혁교회(GKSA)의 시편서(psalmboek)에 “성경 노래”(skrifberymings)가 79곡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그러나 “성경 노래” 가운데 사회나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곳은 거의 없다. *Psalmboek* (Wellington: NGKB, 2001), v-vi. 하지만 호주개혁교회(CRA)의 예배서(*Book of Worship*)에는 생태(ecology) 찬송이 5개이며, 사회와 사회 정의(society and social justice) 찬송은 무려 21곡이나 포함된다. 참고, *Book of Worship* (Geelong: Reformed Churches of Australia, 1990), 912, 925. 그리고 미국 기독교개혁교회(CRC)의 시편 찬송가의 경우, “사회/사회 관심사”(society/social concerns)를 반영한 곡은 시편 79, 82, 94편을 비롯하여 총 8개이다. *Psalter Hymnal* (Grand Rapids: CRC Publications, 1987), 1073.

55) Dallen, “Liturgical Spirituality,” 59; 이상일, “공적 신앙 형성과 회중찬송,” 213. 참고로 196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개신교 현대 고전 찬송(PCCH)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에큐메니칼 찬송(GES)의 경우, 정의와 자유와 환경을 강조하는 찬송 가사가 현저하다. Hawn, “Streams of Song,” 18-21.

56) 젊은 층을 회중 찬송에 동참시키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시편송과 찬송가를 부르도록 가르침, 어린이를 위한 찬송가 이야기 자료를 제작, 회중 찬송가를 바탕으로 하는 교회학교 교과과정을 수립, 유초등부 및 중고등부 찬양대 운영, 교회 절기에 간세대 찬양대 운영, 기도와 [절기] 설교와 행사에 찬송가를 결합 등이다. M. N. Keithahn, “Engaging Children and Youth in Congregational Song: Twelve Suggestions,” *The Hymn* 61/3 (2010), 19-26.

4. 나오면서

사람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는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고, 신앙은 음악으로 성육신한다고 볼 수 있다.⁵⁷⁾ 즉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은 회중 찬송가의 마지막 절(stanza) 다음에, 자신의 신앙의 실천을 결단하는 한 절을 추가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미리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⁵⁸⁾ 설교 후에 화답하는 찬송가라면, 마지막 한 절을 추가하여 세상 속에서 설교대로 실천하겠다는 결단과 적용은 더 용이할 것이다.

지난 세기부터 오순절 계열의 경배와 찬양과 복음송⁵⁹⁾ 그리고 CCM이 장악한 교회 음악의 현실을 직시하고,⁶⁰⁾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생생하게 와

57) S. H. Lim, “Raising the Bamboo Curtain: A Visit with Asian Congregational Song,” *The Hymn* 63/3 (2012), 10.

58) J. Johnston, “Singing the Future with Sacred Song,” *Lutheran Theological Journal* 52/2 (2018), 104.

59) 복음송의 기원은 J. Ingalls의 『크리스천 하모니』(1805)와 복음주의 찬송가집들에 수록된 미국의 포크 찬송가들이다. 1960년대 중반에 젊은이의 취향을 고려하여 포크와 팝 계열의 복음송이 늘어났는데, 교회 내의 간증용 그리고 신앙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Reynolds and Price, 『찬송가학』, 164, 192.

60) 한국교회에 유행하고 있는 “경배와 찬양”은 개인화, 유행을 타는 세속화, 평준화, 대중화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공동체화, 정결화, 특성화, 차별화로 바꾸어야 한다는 제안은 양정식, “현대 찬양경배예배의 이해와 개선점: 예배찬양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22 (2010), 331, 341을 보라. 그리고 회중이 모여서 각자 크게 기도하는 통성기도 대신에 기도문 형식의 찬양을 합심 기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예. 떼제공동체).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이런 음악이 동반된 합심 기도의 장점은 감정 표현을 돕고 감성을 자극하며, 회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합심 기도 때 음악을 활용하면, 기도 분위기를 조성하고,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며, 오래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찬송 1곡에 기도 제목 1개와 같이 기도 시간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음악이 인위적으로 기도하는 이의 감정을 고조시키거나, 지나치게 큰 소리와 빠른 곡조로써 과도한 통성 기도를 조장하거나, 음악이 하나님의 임재와

당지 않는 18-19세기 찬송가들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회중 찬송가의 위기론이 제기되었다.⁶¹⁾ 서구 신학을 한국에 토착화하는 대신⁶²⁾ (혼합주의를 극복하면서) 한국 자생적 신학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듯이, 교회 음악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있어 왔다.⁶³⁾ 그리고 교회와 신학교에서 회중 찬송에 대한 교육 강화와 같은 다양한 개선 방향이 제시되어 왔다. 이처럼 회중 찬송은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회중 찬송은 개인과 공동체와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는가? 회중 찬송은 회중의 신앙과 영성을 표현할 뿐 아니라 형성하기도 한다.⁶⁴⁾ 회중 찬송은 회중을 실제적인 신앙 안으로 인도하며, 공동체를 치유하고 변혁시키는 힘이 있다. 더 나아가 회중 찬송은 공동체의 에토스를 갱신하여, 전통적인 복음 전파와 더불어, 세상 변혁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다.⁶⁵⁾

사람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처럼 음악을 우상화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음악의 친숙한 내용 등으로 인해 기도 방해로 주지 않도록 주의할 기술여야 한다. 이상일, “합심기도와 음악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43 (2015), 98-120에서 요약.

- 61) 회중 찬송에 적합한 일부 CCM을 참고하여 CCS(Contemporary Congregational Song)를 만들 필요가 있다. 참고. Young, “The Denominational Hymnal and The Crisis in Congregational Song,” 25-26.
- 62) 회중 찬송의 토착화에 대해서는 김성대, “예배의 자리, 회중, 예배음악의 관점에서 바라본 회중찬송,” 236-38을 보라.
- 63) 이런 현상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다. Lim, “Raising the Bamboo Curtain,” 17-18.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문화 시대를 맞이한 한국에서 간문화적 회중 찬송의 가능성에 관하여는 L. H. Koops, “Pedagogical Principles of Cross-Cultural Congregational Song,” *The Hymn* 58/4 (2007), 28-29를 참고하라.
- 64) K. R. Hull, “Text, Music, and Meaning in Congregational Song,” *The Conrad Grebel Review* 20/3 (2002), 105.
- 65) N. E. Hardie, “The Transforming Power of Congregational Song,” *Touchstone* 30/2 (2012): 29-30; C. A. Wilson, “The Incarnational Nature of Congregational Song: A Deeper Meaning of Performance” (Ph.D. Thesis, Garrett-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2013), 139-40. 참고로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한 전 세계 예술가들의 노력과 음악의 힘에 대해서는 R. F. Chapin, “Singing down the Walls,” *Sojourners Magazine* 31/3 (2002), 58-59와 D. Schechter, “Artists United Against Apartheid,” *Africa Report* 32/4

한국적 회중 찬송가는 한국 상황 속에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천국 복음의 공공성을 담은 가사가 살아나도록, 한국적이면서도 정숙한 음악이라는 옷을 입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⁶⁶⁾ 이를 위해 모든 교과나 세대를 아우르면서, 이성(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사와 곡이 중요하다.⁶⁷⁾ 그리고 그런 공공적이며 애국적인 찬송가가 거부감 없이 널리 불리기 위해서 작사자와 작곡가는 신앙의 본이 되는 인물이 적합하다. 또한 한국교회에 생소할 뿐 아니라 취약한 시편송을 회중 찬송에 적극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⁶⁸⁾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둘 때, 한국교회의 회중 찬송(가)에 개선되어

(1987), 42-45를 보라.

- 66) “가사의 외적인 운율 숫자의 일치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일치까지 포함하는데, 각 절의 품사, 문맥, 종지, 심지어 클라이맥스까지 일치해야 한다.” 김남수, “「21세기찬송가」 가사와 음악의 조화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 41/1 (2008), 92, 111-16. 칼빈의 찬송 신학은 “첫째,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가사의 영적인 의미를 느껴야 하므로, 그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면서 노래 불러야 하며, 찬송가를 부를 때에는 마음이 전적으로 몰입되어야 한다. 둘째, 찬송가를 창작(가사, 음악)함에 있어서 예배음악에 사용되는 가사는 성경 안에 있는 것, 즉 시편과 성경의 찬미글만 사용해야 하며, 음악은 가볍거나 경박하지 않으며, 장중함과 위엄을 지닌 찬송을 창작해야 한다.” 충신대학교 주성회, “칼빈의 예배음악 신학에 비춰본 한국 찬송가의 나아갈 방향,” 『개혁논총』 31 (2014), 327.
- 67) 이상일, “21세기 한국 문화와 회중찬송,” 211-12. 참고로 김남수는 찬송가를 개편할 경우, 외래어의 고유 용어(예. 할렐루야)는 원곡과 일치하여 번역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칭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현대 어법을 따라 가사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남수, “한국 찬송가 번역 가사의 변천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 61/1 (2018), 376-78.
- 68) 한국적 가락에 맞춘 시편송은 허정갑, “항상 개혁해 가는 예배에서의 전통적인 성가 대: 문화와 신학으로 조율된 교회음악을 위하여,” 『신학과 실천』 11 (2006), 110을 보라. 도르트회의(1618-1619)의 헌법 69항은 교회의 유일한 찬송은 다윗의 시편 150편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전통을 이어 미국 CRC가 RCA에서 분리될 때, 시편송만 부르기로 결의했다. 개혁교회는 마리아의 찬송(the Magnificat)과 사가라의 찬송(the Benedictus) 그리고 십계명 찬송 등을 시편송과 더불어 활용한다. 개혁교회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엡 5:19; 골 3:16)는 시편을 묘사하는 3중 표현으로 이해한다. 참고. 미국 개신개혁교회(PRC) 소속 J. Kortering, “개혁주의 유산으로서의 시편 찬송,” 장수민 역, 『진리와 학문의 세계』 16 (2007), 140-46. Contra 김성대, “예배의 자리, 회중, 예배음악의 관점에서 바라본 회중찬송,” 226-28. 하지만 시편송과 더불어, 신약 성경

야 할 사항은 적지 않으며, 찬송(가)의 “항상 개혁”은 필요하다.⁶⁹⁾

한국교회가 찬송가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비평적으로 참고할 중요한 자료는 예일대학교의 J. W. Rowthorn와 남서침례신학교의 R. Schulz-Widmar가 편집한 “Sing of the World made New: Hymns of Justice, Peace and Christian Responsibility” (Carol Stream: Hope Publishing, 2014)이다. 두 편집자들은 뉴욕 유니온신학교에서 수학했는데, 그들의 찬송가가 이 신학교의 성향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의 대표적인 공공 찬송가라 평가 받는 이 책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구현하기 위해서 교회는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어야 하며, 평화, 약자를 섬김,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책무성 등을 강조한다. 하나님을 송영하는 것은 공적 예배와 경건을 포함하여, 정의와 평화의 실천으로 구체화되는 게 마땅하다.⁷⁰⁾ 그러나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찬송가 혹은 종교 혼합적 방식으로 타 종교인을 위한 정의를 옹호하는 찬송가는 수용할 수 없다.⁷¹⁾

에 나타난 새 언약과 새 노래를 드러내는 찬송들에 곡을 붙여 회중 찬송으로 사용하는 것은 장려할 만하다.

69) 대중가요를 설교에 활용하라는 제안은 협성대 이충범, “대중음악의 설교 활용에 관한 시안,” 『신학과 실천』 30 (2012), 337, 340을 보라. 예배 중에 하나님의 구원이 설교자에 의해 선포되고(이 경우 헨델의 메시아를 설교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음), 교회력을 따라 구현되며, 회중에 의해 노래되어야 한다. 박성환, “구속사적 음악설교: George Frideric Handel의 메시아,” 『복음과 실천신학』 32 (2014), 125-32. 참고로 공 예배 중 “예배로의 부름” 다음 순서인 “(하나님의) 인사”(greeting) 때 회중은 양 손을 뻗고, “인사” 다음에 회중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과 같이 회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안은 *The Worship Sourcebook* (Grand Rapids: Calvin Institute of Christian Worship, 2004), 56-59를 보라.

70) 참고 P. Westermeyer, “Sing of the World made New: Hymns of Justice, Peace and Christian Responsibility,” *The Hymn* 66/3 (2015), 43-44.

71) Contra 미국 감리교 목사 D. C. Damon, “A Cry for Justice in Hymnody: A Plenary Address to The Hymn The Society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he Hymn* 61/4 (2010), 12-14. 참고로 마리아의 찬송(눅 1:46-55)을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본회퍼가 강조한 대로 “열정적이고 야성적이며 혁명적 방식으로” 이해하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은 S. Connelly, “The Magnificat as Social Document,” *Compass* 48/4 (2014), 8-11을 보라. 성경을 주요 자료로 삼아 해석하고 적용하는 찬송가학의 방법은 성경해석학의 방법과 유사하다.

그리스도인은 건전한 성경해석의 도움을 받아 복음을 담은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통해 교회를 세우며, 사람의 지정의에 영양분을 공급하며, 세상에 성경적 윤리와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 그런데 히틀러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후 라디오 음악을 통해 국민이 나치 정부를 지지하도록 만들었고, 독일과 동맹을 맺은 일본도 동일한 방법을 동원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배타적 이데올로기와 전쟁, 그리고 쾌락을 촉진하거나 죽음을 부추기는 비살롭적 음악을 경계해야 한다.⁷²⁾

찬송가학은 성경해석학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1) 두 학문 모두 성경을 주요 자료로 다룬다. (2) 찬송작사와 성경해석가의 선입견과 주관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성경 해석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것을 비평적으로 주의하며 점검해야 한다. (3) 찬송가와 성경 본문은 작사가와 성경 기록자의 삶의 정황 속에서 먼저 이해해야 한다. (4) 찬송가사와 성경본문은 이전의 간본문을 참고할 뿐 아니라, 회중과 독자를 향한 화효(perlocutionary)효과를 의도한다. 따라서 간본문적 찬송학 연구가 필요하다. (5) 찬송가의 제목과 제목 아래 성경구절에 대한 연구는 시편의 표제 연구와 유사하다. 찬송가의 배열과 시편의 배열에 담긴 정경적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6) 성경 주석처럼, 찬송가 주석서가 출판되었다(예. M. Frost, K. L. Parry). (7) 찬송가학과 성경해석학의 열매는 교회의 개혁은 물론, 세상을 천국으로 변혁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회중은 주중의 일상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실천해야 하므로, 찬송과 설교는 공적이다. 따라서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에 입각한 찬송가학과 성경해석학이 간학문적으로 발전하면 교회와 세상을

사한다.

72) 호남신학대학교 김은직, “포스트모던 시대 문화와 교회음악의 살롭적 정체성의 의미: 문화와 음악에 관한 교회음악 철학적 고찰,” 『장신논단』 45/4 (2013), 385-400. 참고로 종교개혁기념 찬송인 “내 주는 강한 성이요”(585장)는 마틴 루터, 주기철목사, 김철훈 목사로 이어지는 공공 찬송이다. 김철륜, “평양 산정현 교회의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에 대한 소고,” 『신학과 실천』 41 (2014), 195-202.

섬기고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산출할 것이다. 신학은 찬송 가사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1942년 12월에 기독교조선감리교단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적으로 해석하였고, 천국은 평안한 마음에 임하지 현세적 정치형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런 결정은 찬송가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⁷³⁾

찬송가의 개혁 못지않게, 기독교대학 안의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의 커리큘럼 조정이 중요하다. 목사후보생은 앞으로 찬송을 지도해야 한다. 따라서 신학교는 교회음악에 대한 기본 지식과 통찰력을 필수 커리큘럼에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⁷⁴⁾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는 음악목사, 찬양대 지휘자 그리고 반주자와 같은 교회음악 전문가와 협력해야 하는데(예. 설교나 교회력에 맞는 찬송 선택과 이전 주일의 회중 찬송 평가 등), 성경 및 교리 공부모임처럼 찬송가 공부 모임을 운영하면 회중 찬송을 강화할 수 있다.⁷⁵⁾ 또한 노회와 총회 내에 “음악부”를 두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 “예배는 실습을 하는 자리가 아니며, 예배음악은 교회의 재정의 감축을 위해서라면 사례금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무에게나 맡겨도 되는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73) 민경배, 『韓國教會 讚頌歌史』, 159-60; Reynolds and Price, 『찬송가학』, 129.

74) 작사가는 신학적 숙고와 시를 읽기 위해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고, 내용이 길고 풍성한 가사를 작성해야 하고, 예배에 적합한 찬양을 다듬기 위해서 작사가와 신학자와 교회음악가의 협업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Bradley, “Congregational Song as Shaper of Theology,” 369를 보라.

75) 김남수, “예배와 회중 찬송,” 446-54. 참고로 김남수는 회중 찬송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찬양대가 데스칸트로 부르고, 회중은 같은 주제의 찬송들을 2-3곡 연속으로 부르기도 하며, 반주 악기를 다양하게 활용하며, 익숙하지 않은 찬송을 가르치며(예. 이 달의 새로운 시편송이나 찬송 배우기 캠페인), 회중과 찬양대가 교대로 찬양하는 방법 등을 제안한다. 참고로 찬양대는 전문적인 달란트와 실력을 회중 앞에서 발휘하는 그룹이 아니며, 찬양대의 찬양 때 회중은 수동적으로 잠시 예배를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아니며, 찬양대는 회중이 접하기 쉽지 않은 특별한 음악을 선보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참고. P. Compton, “Music of Reformed Worship: A Guide and Resource for Organists, Choirs, and Congregations” (D.M.A. Thesi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13), 60, 66-67.

돌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은 항상 최선이어야 하며 항상 최고의 것이어야 한다.”⁷⁶⁾

선교사연합공의회가 편찬하고 조선야소교사회가 발행한 감리교의 『신당 찬송가』(1931)를 두고 벌어진 논쟁으로부터 한국 교회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 찬송가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가 삭제되자, 김교신은 “영혼 속으로, 심장 속으로, 아니 머리털 끝과 손톱 발톱 끝에 까지 우러나오고 솟아 흐르는 눈물”의 찬송가가 빠졌다면 반발했으며, 찬송가 개정판을 통해서 수익을 노린 점도 그는 비판했다. 이것은 남궁억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으로 대표되는 애국과 민족 주체성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순수한 복음신앙에 대한 열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비판이다.⁷⁷⁾ 예배에 사용되는 회중 찬송가는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살롬을 구현하는 생생한 복음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찬송가의 공공적 역할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76) 참고로 외국교회의 교회음악 연주자들은 한국교회 연주가보다 약 2.5배 시간을 들여 연습한다. 미국의 전임 오르가니스트(박사학위 소지자)의 연봉은 85,000-110,000만 달러이다(2015년 기준). 더불어 한국교회에서 눈이 떠는 남성 지휘자와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섬기는 여성 반주자의 사례 격차는 해소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교회에서 여성 음악인은 공적으로는 약자이지만, 교회당 밖 사적으로 남성 못지않은 강자라는 인식도 있다. 김은성, “한국 교회음악의 갱신에 관한 연구: 종교개혁과 예배음악,” 『장신논단』 49/1 (2017), 107-110.

77) 민경배, 『韓國教會 讚頌歌史』, 124-25.

* 부록 1: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공공성을 반영한 회중 찬송가의 실례와 해설


1. 찬송가의 실례

주의 이름 온 세상에

정미경, 2019

정미경, 2019

조급 느리게



1. 죄악의 어둠에서 해매이던 우리 영혼은
2. 흑암의 권세로 패괴된 죄악의 땅에 주님의 보배피로 구원하여 주시었네
3.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과 대구를 이룬다
4. 온 세상의 백기손주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2. 가사 및 곡 해설78)

2.1. 가사 해설

시적 운율: 7. 6. 7. 6. D.

시적 표현: 대구법

가사 내용: 1절 하나님의 일반적인 구원사역

2절 하나님의 우리나라의 구원사역

3절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

4절 구원사역의 완성

일반적으로 찬송가 가사는 시의 형태를 가진다. 시에는 운율이 있는데, 이 찬송시는 7. 6. 7. 6. D(Double), 즉 7. 6. 7. 6. 7. 6. 7. 6.의 운율 구조이다. 이 찬송시의 한 절은 네 개의 프레이즈(phrase)로, 그리고 각 프레이즈는 네 마디로 구성되었다. 네 마디는 두 마디씩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두 마디 단위는 글자 수가 각각 일곱 자, 여섯 자로서 7. 6. 운율이다. 그리고 모든 프레이즈가 같은 운율로서 아주 규칙적인 시의 구조를 띤다.

시적 표현으로는 대구법을 사용하였다. 4절을 제외한 1-3절의 가사에서 1절의 “죄악의 어둠에서 해매이던 우리 영혼”은 2절과 3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고통 받던 우리 백성” 그리고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과 대구를 이룬다. 1절의 “예수님 보배피로 구원하여 주시었네”는 2절과 3절에서 각각 “하나님 도우시사 자유 얻게 하시었네” 그리고 “구원과 참 위로의 손길들을 기다리네”라는 가사와 대구를 이룬다.

78) 이 찬송가를 작시 및 작곡한 정미경은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를 졸업하고 미국 남침례신학대학원에서 음악석사(교회음악 & 오르간전공)와 미국 인디애나음악대학에서 음악박사(오르간전공)를 받은 후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교회음악대학원, 그리고 여자신학원에서 외래교수로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부산 삼일교회(초량)에서 오르가니스트와 1부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이 찬송가 가사는 네 개의 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공공성을 나타내고 있다. 1절 가사는 현재완료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구원사역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과거로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죄악의 어둠에서 헤매던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내용이다.

2절 가사는 현재완료 진행형으로 1절 보다는 범위가 축소된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나타낸다. 여기서 “흑암의 권세”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데, 첫째는 마귀의 세력을, 둘째는 일제의 탄압을 얘기한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심으로써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셨다. 따라서 영적인 자유를 얻은 후에 복음 안에서 진정한 의와 평강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린다는 내용이다. 이 감사 찬송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또 다른 해석은 35년간의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린다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는 우리의 말과 글, 즉 우리의 혼과 정신을 빼앗는 어둠의 시간이었다. 일제의 통치 하에 우리는 우리 땅에서 종과 같은 신분으로 수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3.1운동을 비롯한 수많은 항일투쟁을 통해 결국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러한 투쟁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애국인들의 독립을 향한 피나는 노력과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해방시켜 주셨으며, 해방 후 우리는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맛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다. 비록 이 2절 가사가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나타내고자 의도한 것이지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역사를 통해 힘든 시간을 경험하였기에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하여도 무방하다.

3절은 현재형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우리 또는 믿는 자들의 의무를 나타낸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백성, 그리고 멀게는 전 세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구원의 기쁜 소식과

위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슬픔과 아픔의 마음을 실제로 어루만지고 보듬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복음의 중심인 주님의 사랑이 실제로 전달되어 복음이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4절은 미래형으로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나라와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드림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 기쁨을 맛볼 것이다(벧 후 3:13).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표현하고 있다.

2.2. 곡 해설

조 성: 마단조-사장조

음 계: 5음 음계(도레미솔라)

음 역: 한 옥타브(e1-e2: 가온 미-한 옥타브 높은 미)

형 식: A-A'-B-C

박 자: 6/8박자

빠르기: 조금 느리게(국악풍으로)

찬송가에서 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곡조이다. 이는 요리와 그릇과의 관계로서 각 요리를 그에 맞는 그릇에 담을 때 멋진 요리가 완성되듯이, 찬송가 가사를 그에 어울리는 곡조라는 그릇에 잘 담아낼 때 그 가사의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다. 이 찬송가 가사의 의미와 한국적인 느낌을 잘 표현하기 위하여 조성, 음계, 박자, 빠르기 등의 음악적 요소를 고려하여

사용하였다.

노래 작곡에서는 주로 가사의 분위기에 따라 조성을 선택하는데, 일반적으로 단조는 어둡고 슬픈 분위기, 그리고 장조는 밝고 기쁜 분위기의 가사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찬송가에는 주로 장조곡이 많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부활과 재림, 천국, 선교 등 밝고 힘차며 긍정적인 내용의 가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 고난에 관한 찬송가도 장조 조성으로 된 것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단조 찬송가라 할지라도 마지막 “아멘”은 장조로 마친다는 점이다. 1절 가사가 어둡고 슬픈 분위기로 시작을 하지만, 2, 3절을 거쳐 마지막 절에서는 희망과 감사의 밝은 내용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 찬송가 곡조는 단조로 시작하여 중간에 장조로 바뀌어 마지막은 장조로 마친다. 찬송가 각 절(4절은 제외)은 “죄악의 어둠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세상의 어둠속에” 같은 다소 무겁고 어두운 느낌의 가사로 시작한다. 그래서 단조 조성의 낮은 음을 통하여 그 의미와 느낌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가사 후에는 구원하심, 참된 평화, 주의 복음 증거, 하늘나라, 감사 찬송, 주님 영광 등 밝고 기쁜 내용의 가사들이 나오기에 밝은 장조 조성과 높은 음역을 사용하였다.

한국적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 5음 음계를 사용하였다. 5음 음계는 그 곡의 8음 음계(도-도)에서 ‘파’와 ‘시’를 제외한 ‘도레미솔라’ 5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 민요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 민요들은 5음 음계로 되어있다. 그리고 음역은 가온 마-한 옥타브 높은 미(e1-e2)까지 한 옥타브 내로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다.

이 찬송곡의 프레이즈 형식은 A-A'-B-C 구조를 띤다. 찬송가는 다양한 층의 회중이 부르는 것으로 단순해야 부르기도 쉽고 오랫동안 기억하기가 쉽다. 단순하다는 것은 곡조의 리듬이 단순하고 프레이즈의 반복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21세기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는 네 개의 프레이즈(4줄)가 A-A-B-A로 되어 있어서 결국 첫 번째와 세 번째 줄(프레이즈)만 알면 찬송가 전체를 부를 수 있다. 이 찬송가는 A-A'-B-C 구조로서 이 보다는 다소 반복이 없지만 각 프레이즈의 리듬이 같고, B와 C 형식의 뒷부분이 유사하므로, 쉽게 익힐 수가 있고 기억하기 쉽다.

박자는 6/8박자를 사용하였다. 6/8박자는 겹박자로서 우리나라 민요의 대부분이 6/8, 9/8, 12/8박자 같은 겹박자로 되어 있는데, 한국적 느낌을 주기 위해 이 찬송가에서도 사용하였다. 6/8박자 곡은 약간 빠르게 한 마디를 6박 보다는 2박의 느낌으로 흘러가듯이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찬송가는 시작하는 가사의 분위기가 조금 느린 템포로 다소 무겁게 부르는 것이 가사의 의미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음을 연결하는 레가토(legato) 방식보다는 우리나라 민요를 부르듯이 음 사이를 끊어서 텅기듯이 부르면 한국적인 느낌을 더 나타낼 수 있다.

* 부록 2: 회중의 참여를 높인 생방 언약 갱신으로서의 예전

A. 예배로 부르심 (↓)⁷⁹⁾

1. 예배로의 부름(시 121:1-2 혹은 124:8) -사회자의 낭독⁸⁰⁾
2. 인사(복의 선언; 민 6:24-26; 고후 13:13; 계 1:4-5 등)- 사회자는 손을 들고, 회중은 눈을 뜨고 두 손을 내밌⁸¹⁾

B. 부르심과 인사에 찬송과 회개와 신앙고백으로 응답

3. 시편 회중 찬송(1)- 찬양대의 데스칸트⁸²⁾ (↑)

79) (↓)는 하나님께서 회중을 향하는 예배 순서를, (↑)은 회중이 하나님을 향하는 순서를 가리킨다. 개혁신교회는 예배 전에 오르간 연주를 5-10분 정도 하며, 봉헌 시간과 예배 직후에도 오르간 연주가 있다. 1990년경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오르간을 구비했다가, 현대 음악적 예배가 유행할 때는 오르간의 중요성도 덩달아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예전적 예배의 회복을 추구하는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자의 필요는 증가하고 있다. 김은성, “예배음악으로서의 오르간 음악: J. S. Bach의 Orgelbüchlein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51/1 (2019), 278-79.

80) 개혁신교회는 예배 전에 장로와 집사가 모여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 소식을 점검한다. 교회 소식은 예배 시작 전에 알린다. 회중은 교회 소식을 듣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좋다. 이 시간에 특별한 소식을 알리고, 필요시 (목적)헌금의 용처를 알리고, 초대한 설교자를 소개하며, 성찬에 참여할 방문자가 있으면 소개한다. 교회당을 장식한 꽃이 있다면 주중 심방(환우 등)이나 축하용(세례자, 70회 생일자, 신혼부부 등)으로 활용한다. 남아공 개혁신교회(GKSA)는 주일 오전과 저녁 예배 후 교회당 출입구에서 각각 목적 헌금(성경보급, 신학생 후원 등)을 따로 한다.

81) 사회자(설교자)는 복의 선언구절을 성경으로부터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암송하여 선포한다.

82) 매 달 시편송을 한 곡씩 배우는 시간을 주일 오전 예배 전이나 후에 가진다. 참고로 미국 기독교개혁교회(CRC)의 “시편 찬송가”에 성경적, 보편적, 고백적, 목회적인 내용을 가진 시편송 150개, 성경 노래(Bible songs) 86개, 그리고 찬송가 406개가 실려 있다. 이 시편 찬송가 뒤에는 신앙고백, 성례식 문, 직분자 임직식문, 혼인식문, 그리고 색인이 추가된다. 참고. *Psalter Hymnal*, 11. CRC의 “시편 찬송가”를 한국의 찬송가와 비교하면 노래 숫자는 비슷하지만, 시편 찬송가가 150개의 시편송을 포함하며, 무엇보다 신앙고백, 성례문 그리고 예전문을 성도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특징이다. 시편

4. 회개 기도와 사죄 선언 - 기도하는 동안 피아노나 오르간 반주 (↓)(↑)

5. 사도신경 회중 찬송(2)⁸³⁾ (↑)

C. 말씀으로 먹이심

6.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⁸⁴⁾ (↑)

7. 성경 봉독 - 사회자가 신약과 구약 한 단락씩 낭독⁸⁵⁾ (↓)

8. 설교⁸⁶⁾ (↓)

(9. 성찬- 사회자의 성찬 예식문 낭독, 회중의 성찬 찬송[4])⁸⁷⁾ (↓)(↑)

D. 말씀에 기도와 찬송과 봉헌으로 화답 (↑)

10. 결단의 합심 기도⁸⁸⁾

송은 한국 찬송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 주성희, “칼빈의 예배음악 신학에 비춰본 한국 찬송가의 나아갈 방향,” 350.

83) 사도신경과 니케아신경은 격주 혹은 격월로 번갈아가며 찬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일 오후(저녁) 예배에 신앙고백에 대한 설교가 필요하다. 칼빈의 제네바 시편송을 잘 계승한 프랑스 개혁교회의 찬송가(총 352곡. 1988)는 70곡에 달하는 교리문답송을 포함하며, 『찬양가』(1894)에 십계명송, 사도신경송, 주기도송이 포함되었다. 주성희, “칼빈의 예배음악 신학에 비춰본 한국 찬송가의 나아갈 방향,” 331, 344.

84) 조명을 위한 기도는 설교자가 인도하기 적합하다.

85) 설교 본문이 신약 성경이면, 관련 구약 본문을 먼저 읽는다. 설교 본문 중에서 열쇠가 되는 1-2절 분량의 본문을 따로 밝히는 것은 회중이 설교의 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개혁신교회는 설교 제목을 제시하지 않고, 단문으로 된 설교 요지를 밝힌다.

86) 봉독한 구약과 신약 두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속사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87) 성찬 시행 이전에 구역장 역할을 하는 장로는 구역원을 심방해야 하는데, 심방은 말씀의 방문이다. 보이는 설교인 성찬은 과거의 그리스도 사건을 회상하고, 현재의 식탁을 기대하게 하며, 어린양의 혼인 잔치의 완성을 사모하게 하는 언약의 식사이다. 분병과 분잔은 대개 집사의 몫이다. 그리고 성찬예식문에 교독을 포함하여 회중의 참여를 유도한다.

88) 설교를 들은 성도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겠습니다”라는 결단 형식의 표현으로써 기도해야 한다.

11. 말씀에 회답하는 찬양대와 회중 찬송(5)⁸⁹⁾

12. 봉헌- 피아노 혹은 오르간 반주⁹⁰⁾

13. 목회 기도⁹¹⁾

E. 감사와 파송

14. 십계명 회중 찬송(6)⁹²⁾ (↑)

15. 복의 선언- 사회자는 두 손을 들고, 회중은 눈을 뜨고 두 손을 내밈⁹³⁾
(↓)

89) 설교자는 교회음악사역자(지휘자, 반주자)에게 3주 전에 설교 본문과 주제(설교 요지와 3대지)를 알려서 설교에 적합한 찬양을 준비하도록 한다.

90) 예배 시작 전에 입구의 헌금함에 넣기보다, 예배 중에 집사들이 수금한다.

91) 교회(자녀, 환우, 고령자 등), 사회, 국가, 세계 선교 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92) 마틴 루터는 설교나 성찬 후에 회중이 부르도록 1524년에 십계명송 2편을 만들었다. 십계명을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함으로써, 들은 말씀과 계명대로 한 주 동안 즐거이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한다. 문성모, “마틴 루터의 예배음악에 대한 신학적 이해,” 『낭만음악』 32 (1996), 78.

93) “예배로의 부름”(call to worship) 다음 순서인 첫 번째 복의 선언(하나님의 복된 인사)이 예배를 드리러 모인 언약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교제를 위해서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이자 마지막 복의 선언은 세상을 향해 성도를 파송하는 선교적 의미가 크다.

참고문헌

- 강대덕. “한서 남궁억의 무궁화 사랑과 민족교육.” 『강원문화사연구』 15 (2010): 65-87.
- 강만희. “2000년 이후 출판된 미국 회중찬송가의 경향과 특징.” 『신학과 실천』 35 (2013): 131-67.
- _____. “한국 찬송가 색인에 관한 연구: 역사, 구성 및 내용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 42/1 (2008): 7-40.
- 김남수. “21세기찬송가」 가사와 음악의 조화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 41/1 (2008): 91-118.
- _____. “예배와 회중 찬송.” 『복음과 실천』 16/1 (1993): 441-55.
- _____. “한국 찬송가 번역 가사의 변천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 61/1 (2018): 359-80.
- 김도수. “개화기 30년간 개신교 찬송가의 유입과 수용 과정 및 학교음악과 사회음악에 끼친 영향.” 『음악논단』 23 (2009): 159-195.
- 감상구. “예배에서 음악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 19 (2009): 122-47.
- 김성대. “예배의 자리, 회중, 예배음악의 관점에서 바라본 회중찬송.”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7/1 (2006): 215-42.
- 김은성. “예배음악으로서의 오르간 음악: J. S. Bach의 *Orgelbüchlein*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51/1 (2019): 259-82.
- _____. “한국 교회음악의 갱신에 관한 연구: 종교개혁과 예배음악.” 『장신논단』 49/1 (2017): 93-114.
- 김은직. “포스트모던 시대 문화와 교회음악의 살롬적 정체성의 의미: 문화와 음악에 관한 교회음악 철학적 고찰.” 『장신논단』 45/4 (2013): 381-404.
- 김태규. “초기 한국교회 찬송가에 나타난 성찬이해.” 『복음과 실천신학』 33 (2014): 74-113.

- 김철륜. “평양 산정현 교회의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에 대한 소고” 『신학과 실천』 41 (2014): 177-206.
- 노동은. “1910년대 기독교계 학교의 음악교육과 그 영향” 『한국기독교와 역사』 20/3 (2004): 65-117.
- 문성모. “마틴 루터의 예배음악에 대한 신학적 이해.” 『낭만음악』 32 (1996): 57-80.
- _____. “[한국교회 예배와 음악 다시 보기 (22)] 애국가는 찬송가로 만들어졌다.” 『기독교사상』 690 (2016): 136-44.
- _____. “[한국교회 예배와 음악 다시 보기(25)] 한국 찬송가의 역사와 전망.” 『기독교사상』 693 (2016): 106-118.
- 민경배. 『韓國教會 讚頌歌史』.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7.
- 박경수. “한국 개신교 초기 교회 연합 운동의 유산.” 『장로교회와 신학』 8 (2011): 201-228.
- 박성환. “구속사적 음악설교: George Frideric Handel의 메시아.” 『복음과 실천신학』 32 (2014): 101-137.
- 박태준. “예배와 찬송.” 『신학논단』 1 (1953): 61-64.
- 성석환. 『공공신학과 한국 사회』.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 양정식. “평화의 사회적 정의를 위한 치유와 회복의 음악.” 『신학과 실천』 42 (2014): 499-524.
- _____. “현대 찬양경배예배의 이해와 개선점: 예배찬양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22 (2010): 319-54.
- 오소운. 『알기 쉽게 쓴 21세기 찬송가 해설』. 서울: 성서원, 2017.
- 유준기. “3.1운동과 기독교계 민족대표의 활동.” 『總神大論叢』 23 (2003): 61-90.
- 이상일. “21세기 한국 문화와 회중찬송.” 『장신논단』 37 (2010): 189-218.
- _____. “3.1정신과 21세기 한국교회 회중찬송곡.” 『선교와 신학』 46 (2018): 301-330.

- _____. “공적 신앙 형성과 회중찬송.” 『신학과 실천』 58 (2018): 193-221.
- _____. “합심기도와 음악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43 (2015): 93-125.
- 이충범. “대중음악의 설교 활용에 관한 시안.” 『신학과 실천』 30 (2012): 321-46.
- 정경호. “선교 초기 찬송가 및 노래말 속에 나타난 민족신앙과 사회변혁의 윤리: 선교 초기에서 193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신학과 목회』 12 (1998): 155-204.
- 조숙자. “한국 찬송가와 미국 Gospel Song.” 『장신논단』 13 (1997): 421-48.
- 주성희. “칼빈의 예배음악 신학에 비춰본 한국 찬송가의 나아갈 방향.” 『개혁논총』 31 (2014): 321-58.
- 주지은·황은영. “기독교 암 환자의 개인변인에 따른 교회 음악 선호도 조사연구.” 『신학과 실천』 39 (2014): 281-306.
- 하재송. “Hymns of Social Concerns by Fred Pratt Green and Fred Kaan.” *Chongshin Review* 17 (2012): 179-92.
- _____. “한국찬송가와 애니 베어드(Annie L. Baird).” 『總神大論叢』 36 (2016): 185-206.
- 허정갑. “항상 개혁해 가는 예배에서의 전통적인 성가대: 문화와 신학으로 조율된 교회음악을 위하여.” 『신학과 실천』 11 (2006): 97-121.
- Allen, P. P. “Singing a Faithful Song: Brian Wren’s Hymns of Justice.” *The Christian Century* 102/23 (1985): 675-79.
- Auda, S. O. “The Place of Church Music in the Promotion of Peace and Justice in the Society.” *Ogbomosho Journal of Theology* 19/3 (2014): 48-53.
- _____. *Book of Worship*. Geelong: Reformed Churches of Australia, 1990.
- Bradley, C. R. “Congregational Song as Shaper of Theology: A Contemporary Assessment.” *Review & Expositor* 100/3 (2003): 351-73.
- Burnett, J. S. “Congregational Song and Doctrinal Formation: The Role of Hymnody in the Arian/Nicene Controversy.” *Liturgical Ministry* 10 (2001): 83-92.

- Chapin, R. F. "Singing down the Walls." *Sojourners Magazine* 31/3 (2002): 58-59.
- Compton, P. "Music of Reformed Worship: A Guide and Resource for Organists, Choirs, and Congregations." D.M.A. Thesi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13.
- Connelly, S. "The Magnificat as Social Document." *Compass* 48/4 (2014): 8-11.
- Dallen, J. "Liturgical Spirituality: Living What We sing about." *Liturgical Ministry* 4 (1995): 49-59.
- Damon, D. C. "A Cry for Justice in Hymnody: A Plenary Address to The Hymn Society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he Hymn* 61/4 (2010): 8-16.
- Davila, J. R. *Liturgical Works: Eerdmans Commentaries on the Dead Sea Scrolls*. Grand Rapids: Eerdmans, 2000.
- Edwards, M. J. "The Teaching Ministry of Congregational Song." *Southwestern Journal of Theology* 38/2 (1996): 35-39.
- Garrett, T. S. *Christian Worship: An Introductory Outlin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 Hardie, N. E. "The Transforming Power of Congregational Song." *Touchstone* 30/2 (2012): 28-35.
- Hawn, C. M. "Streams of Song: An Overview of Congregational So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Hymn* 61/1 (2010): 16-26.
- Hehn, J. "Congregational Song as Theological Debate in Late Antiquity: A Case Study of Arius's Thalia and the Development of Trinitarian Orthodoxy." *The Hymn* 65/1 (2014): 13-20.
- Hull, K. R. "Text, Music, and Meaning in Congregational Song." *The Conrad Grebel Review* 20/3 (2002): 81-106.
- Johnston, J. "Singing the Future with Sacred Song." *Lutheran Theological Journal* 52/2 (2018): 103-111.
- Keithahn, M. N. "Engaging Children and Youth in Congregational Song: Twelve Suggestions." *The Hymn* 61/3 (2010): 17-26.
- Koops, L. H. "Pedagogical Principles of Cross-Cultural Congregational Song." *The Hymn* 58/4 (2007): 22-29.
- Kortering, J. "개혁주의 유산으로서의 시편 찬송." 장수민 역. 『진리와 학문의 세계』 16 (2007): 131-54.
- Lim, S. H. "Raising the Bamboo Curtain: A Visit with Asian Congregational Song." *The Hymn* 63/3 (2012): 10-21.
- Morgan, M. "In Every Corner sing!: Congregational Song in a Global Mission Context." *Journal for Preachers* 33/4 (2010): 48-53.
- Noll, M. A. "We are What We sing: Our Classic Hymns reveal Evangelicalism at Its Best." *Christianity Today* 43/8 (1999): 37-41.
- Pressau, J. R. "Songs of Salvation: Yesteryear's Music for Yesterday's Faith." *Duke Divinity School Review* 43/1 (1978): 54-67.
- Psalter Hymnal*. Grand Rapids: CRC Publications, 1987.
- Psalmbok*. Wellington: NGKB, 2001.
- Reynolds, W. J. and Price, M. 『찬송가학』. *A Survey of Christian Hymnody*. 이혜자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7.
- Schechter, D. "Artists United Against Apartheid." *Africa Report* 32/4 (1987): 42-45.
- Sharp, T. W. "The Decade of the Hymnal 1982-1992: Choral Piety and Belief, Hardbound." *Choral Journal* 32/9 (1992): 31-35.
- The Worship Sourcebook*. Grand Rapids: Calvin Institute of Christian Worship. 2004.
- Westermeyer, P. "Sing of the World made New: Hymns of Justice, Peace and Christian Responsibility." *The Hymn* 66/3 (2015): 43-44.
- Wilson, C. A. "The Incarnational Nature of Congregational Song: A Deeper Meaning

of Performance.” Ph.D. Thesis, Garrett-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2013.

Young, C. R. “The Denominational Hymnal and The Crisis in Congregational Song.”
Choral Journal 9/5 (1969): 24-27.

구약학

구약과 다문화가정

The Old Testament and Multi-Cultural Family

신득일

고신대 (신학과 교수)

목차

1. 서언 | 155
2. 본론 | 156
 - 2.1. 이주자에 대한 구약의 용어와 정의 | 156
 - 2.2. 이주자의 법적인 보호 | 159
 - 2.3. 이주자의 사회적 지위와 권한 | 162
 - 2.4. 이주자의 종교적 위치 | 165
 - 2.5. 이주자의 가정과 결혼 | 167
 - 2.6. 이주자의 미래 | 169
3. 결론(요약) | 171